

정읍시, ICT 도입 디지털 농업 가속

(정보통신기술)

환경·생육센서, 영상장비 설치 자동개폐 등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 희망 농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ICT 기반 농업시설 전환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 ICT 기반 스마트팜. (정읍시 제공)

“이제 스마트팜은 선택 아닌 필수” 정읍시가 2026년부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ICT 기반 농업시설 전환을 본격 지원하며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이 사업은 기존 농업시설에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정밀농업을 실현하고, 나아가 디지털 농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온실에 ICT 장비 및 관련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된다. 첫 번째 분야는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이다. 또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을 설치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 있다.

이와 함께 환경센서, 생육센서, 영상장비 등 ICT 장비를 설치하는 ‘ICT 융복합 확산 지원’도

주목을 끌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은 특히 청년농과 귀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병해충 방제’ 7억4000만원 투입

고온다습 환경 해충 조기 발생...벼 경작지 1만1115ha 약제 지원

고창군이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해 7억4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고창군은 전남 해남에서 벼멸구가 예년보다 15 일가량 빠르게 발생했다며 고온다습 환경에 벼멸구와 나방류의 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벼 경작지(1만1115ha)에 대한 공동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급히 지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고창에서는 대부분의 읍면에서 7월 중순부터 벼멸구가 발견되고 있다.

방제 적정시기는 포기당 2마리 이상 발견시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멸구 밀도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단 및 읍면농업인상담소와 함께 벼 품질과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의 긴급방제를 위한 일제출장을 추진한다.

신속한 방제는 물론 약제살포 시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의 사전방제는 그해의 쌀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드론을 활용해 단지역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 방제 효율성 향상 및 피해가 최소화 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폭염 대비 취약층 ‘방문 건강관리’

9월까지 만성질환자·독거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고창군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폭염일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오는 9월까지 만성질환자 및 독거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주요 서비스는 ▲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혈압, 혈당 등) 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 경로당 및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 교육 자료 배부 ▲ 건강한 여름 나기 물품 배부(쿨 토시, 부채 등) 등이 포함된다.

특히 폭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42명의 전담 요원이 경로당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어르신에게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방문 수칙과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법, 무더위 쉼터 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이장회의 등 주민 대상 회의에서도 폭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사회 전반의 폭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수수료 지원

정읍시, 농가당 최대 200만원...유통비 절감·재투자 여력 마련

정읍시가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참여 농가에 납품 수수료로 총 12%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다. 줄여진 수수료 4%는 시가 3%, 농협이 1%를 각각 부담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다. 정읍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1차 농산물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단, 축산물과 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로 진행된다. 농가당 반기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농가가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다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로컬푸드 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유화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장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농가가 부담하던 비용을 시와 농협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재배 기반을 확고히 하고 로컬푸드 유통 경쟁력을 높여 농업이 더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영유아 발달검사·조기진단·심리지원

오창숙 시의원 발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통과

남원시의회가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창숙(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및 조기진단,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지원 등 다각적 지원 사업 추진 ▲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오창숙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자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부모와 아이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지속적인 보완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본격 운영

만성질환 예방 통합 건강 서비스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체력단련실 이용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소생활권 건강 관리 거점 시설로, 원스톱 건강 관리 체계 구축과 통합 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체험할 건강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역 건강 지표 분석과 시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 건강

생활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72억원(시비 19억원 증액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운영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와 건강 요구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분석 등이 가능한 통합 관리실과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고, 비만 관리 프로그램과 한의약 기공체 등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슬로우조깅·걷기 동아리 등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